

확대비율: 110%

전북도민일보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016면 사람들 9.8 x 12.2cm



전주대 보건분야 국가·민간 시험 최상위 합격률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최근 치러진 보건 분야 국가·민간 자격 시험에서 최상위 합격률을 보였다.

전주대 학생들은 지난해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응시자 28명 전원이 합격해 100%의 합격률을 달성했다. 같은 날 진행된 건강보험사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국가시험인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으며, 제35회 국가시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서도 27명 중 18명이 합격해 두각을 나타냈다.

김혜지 기자

확대비율: 100%

전민일보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015면 사람 10.5 x 9.2cm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국가·민간 자격시험서 두각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최근 치러진 보건 분야 국가·민간 자격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훨씬 웃도는 합격률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응시자 28명 중 28명이 전원 합격하며, 합격률 100%를 달성했다. 같은 날 진행된 건강보험사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국가시험인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보건교육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취득하게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일하게 된다.

특히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제35회 국가시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7명 응시 중 18명이 합격하여 66.6%가 합격했다. 이러한 합격률은 전국 평균 합격률이 3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최상위로 명문학과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보건관리학과장 장선일 교수는 “방학기간에도 교수와 학생들이 개인 시간을 반납하고 동고동락하며 노력한 결과가 높은 합격률로 나타났다.”라며, “보건계열 특성화 학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증진 및 실무형 보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봉기자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합격률 최상위권

병행사 100%, 보교사 3급·건보사 92.8%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66.6% 합격률 보여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지난 17일 최근 치러진 보건 분야 국가·민간 자격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훨씬 웃도는 합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응시자 28명 중 28명이 전원 합격하며 합격률 100%를 달성했으며 같은 날 진행된 건강보험사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국가시험인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보건교육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취득하게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일하게 된다.

보건교육사는 매년 응시자가 급증하여 평균 합격률 50%대를 상회하는 전문 자격증이다.

특히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제35회 국가시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7명 응시 중 18명이 합격해 66.6%가 합격했다. 이러한 합격률은 전국 평균 합격률이 3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최상위로 명문학과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017년 의무기록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응시 요건도 강화되고 기존의 의무기록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분류·확인·관리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합격하면 상급 의료기관에 취직 가능하며,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관리학과장 장선일 교수는 “방학기간에도 교수와 학생들이 개인 시간을 반납하고 동고동락하며 노력한 결과가 높은 합격률로 나타났다”며

“보건계열 특성화 학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증진 및 실무형 보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e-Health care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외 보건의료기관과 산학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실무 중심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김지애 기자

확대비율: 100%

전주일보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004면 종합 12.6 x 14.9cm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합격률 우수

보건 분야 국가·민간 자격시험, 평균 합격률보다 높아

전주대학교는 보건관리학과가 최근 치러진 보건 분야 국가·민간 자격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응시자 28명 중 28명이 전원 합격해 100%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건강보험사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국가시험인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보건교육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취득하게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일하게 된다.

보건교육사는 매년 응시자가 급증해 평균 합격률 50%대를 상회하는 전문 자격증이다.

특히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제35회 국가시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7명 응시 중 18명이 합격해 66.6%가 합격했다.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이 31%보다 매우 높은 합격률을 자랑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017년 의무기록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응시 요건도 강화되고 기존의 의무기록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분류·확인·관리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합격하면 상급 의료기관에 취직 가능하며, 의료 및 보건 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선일 보건관리학과장 교수는 “방학 기간에도 교수와 학생들이 개인 시간을 반납하고 동고동락하며 노력한 결과가 높은 합격률로 나타났다”며 “보건계열 특성화 학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증진 및 실무형 보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e-Health care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외 보건의료기관과 산학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실무 중심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고병권 기자

확대비율: 100%

전주매일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005면 경제·사회 12.1 x 11.0cm

실무 중심형 인재 양성 명문학과 증명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국가·민간자격시험 합격률 최상위권 달성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최근 치러진 보건 분야 국가·민간 자격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훨씬 웃도는 합격률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응시자 28명 중 28명이 전원 합격하며, 합격률 100%를 달성했다.

같은 날 진행된 건강보험사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국가시험인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보건교육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취득하게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일하게 된다.

보건교육사는 매년 응시자가 급증하여 평균 합격률 50%대를 상회하는 전문 자격증이다.

특히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제35회 국가시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7명 응시 중 18명이 합격하여 66.6%가 합격했다. 이러한 합격률은 전국 평균 합격률이 3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최상위 명문학과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017년 의무기록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응시 요건도 강화되고 기존의 의무기록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분류·확인·관리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합격하면 상급 의료기관에 취직 가능하며,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은성기자

확대비율: 100%

전북타임스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005면 문화 12.0 x 18.4cm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명문학과 증명하다

보건 분야 국가·민간자격시험 합격률 '최상위권'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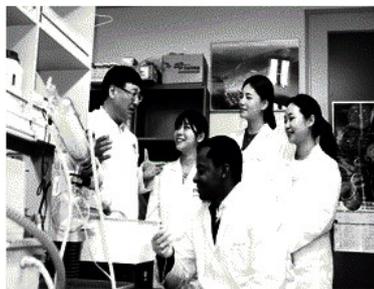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17일 최근 치러진 보건 분야 국가·민간자격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훨씬 웃도는 합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응시자 28명 중 28명이 전원 합격하며, 합격률 100%를 달성했다. 같은 날 진행된 건강보험사 시험과 보건교육사 3급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보건교육사는 매년 응시자가 급증해 평균 합격률 50%대를 상회해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취득하게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일하게 된다.

특히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제 35회 국가시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서도 27명 응시 중 18명 66.6%가 합격해 두각을 나타냈다. 이러한 합격률은 전국 평균 합격률이 3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최상위로 명문학과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017년 의무기록사에서 명칭이 변경돼 응시 요건도 강화되고 기존의 의무기록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분류·확인·관리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합격하면 상급 의료기관에 취직 가능하며,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관리학과장 장선일 교수는 “방학기간에도 교수와 학생들이 개인 시간을 반납하고 동고동락하며 노력한 결과가 높은 합격률로 나타났다”라며 “보건계열 특성화 학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증진 및 실무형보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e-Health care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외 보건 의료기관과 산학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실무 중심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김강영 기자

확대비율: 115%

전북증앙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009면 사
람 6.2 x 7.1cm

전주대 보건학과 인재육성 요람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최근 치러진 보건 분야 국가·민간 자격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훨씬 웃도는 합격률을 보이며, 보건계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응시자 28명 중 28명이 전원 합격하며, 합격률 100%를 달성했다.

같은 날 진행된 건강보험사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또 국가시험인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정병창기자 wojuchang@

확대비율: 100%

진북연합신문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004면 교육 23.8 x 13.0cm

전주대 보건 자격시험 합격율 ‘최상위권’

전국 평균 훨씬 웃돌아... 지난해 병원행정사 전원 합격·보건교육사 928% 등 남다른 성과 ‘눈길’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최근 치러진 보건 분야 국가·민간 자격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훨씬 웃도는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11월에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최근 치러진 보건 분야 국가·민간 자격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훨씬 웃도는 합격률을 보였다.

진행된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응시자 28명 중 28명이 전원 합격하며, 합격률 100%를 달성했다.

국가시험인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보건교육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취득하게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일하게 된다. 보건교육사는 매년 응시자가 급증해 평균 합격률 50%대를 상회하는 전문 자격증이다.

특히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제35회 국가시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7명 응시자 중 18명이 합격해 66.6%가 합격했다. 이러한 합격률은 전국 평균 합격률이 3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최상위로 명문학과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017년 의무기록사에서 명칭이 변경돼 응시 요건도 강화되고 기존의 의무기록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분류·확인·관리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합격하면 상급 의료기관에 취직 가능하며,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e-Health care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외 보건의료기관과 산학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실무 중심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임종근 기자 · jk063@naver.com

확대비율: 100%

새만금일보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003면 종합 18.4 x 4.7cm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국가·민간자격시험 합격률 전국 최상위권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가 최근 치러진 보건 분야 국가·민간 자격 시험에서 합격자를 대거 배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병원행정사 시험에 28명이 응시해 28명이 전원 합격했

다. 또 같은날 진행된 건강보험사 시험과 국가시험인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서도 각각 92.8%가 합격했다. 보건교육사의 경우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취득하게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일하게 된다. 보건교육사는 매년

응시자가 급증해 평균 합격률 50%대를 상회하는 전문 자격증이다. 특히 제35회 국가시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7명 응시 중 18명(66.6%)이 합격했다. 전국 평균 합격률이 3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최상위로 명문학과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양병웅기자/ybw0419@naver.com

확대비율: 100%

삼남일보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002면 종합 12.7 x 10.6cm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자격시험 '두각'

병원행정사 응시자 전원합격 등 전국 평균 합격률 큰 폭 상회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최근 치러진 보건 분야 국가·민간 자격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훨씬 웃도는 합격률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응시자 28명 중 28명이 전원 합격하며, 합격률 100%를 달성했다.

같은 날 진행된 건강보험사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국가시험인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서도 92.8%가 합격했다.

보건교육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취득하게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일하게 된다. 보건교육사는 매년 응시자가 급증하여 평균 합격률 50%대를 상회하는 전문 자격증

이다.

특히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제35회 국가시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7명 응시 중 18명이 합격하여 66.6%가 합격했다.

이러한 합격률은 전국 평균 합격률이 3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최상위로 명문학과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보건관리학과장 장선일 교수는 "방학 기간에도 교수와 학생들이 개인 시간을 반납하고 동고동락하며 노력한 결과가 높은 합격률로 나타났다"라며 "보건계열 특성화 학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증진 및 실무형 보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진 기자